

2021

고3 4모

2021년 시행 고3 4월 학평 국어 문학 검녀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명성이 높은 진사 소응천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그의 소실이 되기를 청한다. 어느 날 여인이 자신의 과거사(내부 이야기)(액자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음)(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를 털어놓는다.

저(진사 소응천에게 찾아온 여인)는 본디 모씨 덕의 종(여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마침 주인덕의 소저(주인덕의 딸)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고로 특히 소저의 소꿉 시중을 듣게 하였고, 장래 시집갈 적에 교전비(예전에, 시집갈 때에 신부가 데리고 가는 여자 종을 이르던 말)로 보내려 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이 겨우 아홉 살 적에 주인덕이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해 논밭도 전부 빼앗기고 오직 소저와 유모만이 목숨을 부지해서 타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주인덕이 처한 절망적 상황)(이후 이 '권세가'에 복수를 함) 그때 따라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요.

소저(주인덕의 딸)는 십 세를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남장 모티브)(‘김씨열행록’과 동일한 부분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났지요. [이 년이 지나 비로소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오 년이 지나자 드디어 공중을 날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주인덕의 딸이 비범한 능력을 지니게 됨) 이에 유명한 도회지로 다니면서 묘기를 팔아 여러 천 냥의 돈을 벌어서 보검 네 자루를 샀지요. 드디어 묘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인 양하고 원수(자신의 집을 멸망시킨 권세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러 칼날이 번득이는 곳에 떨어진 머리가 부지기수(그 수를 알 수 없다는 뜻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음을 나타내는 말)였습니다. 원수의 집 안팎식구가 모두 붉은 피를 쏟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날고 춤추며 돌아왔지요.(복수에 성공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함)(인물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한 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소저는 목욕하고 여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 가지고 부모의 산소에 가서 복수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가문을 이을 도리가 없구나.(남존여비, 가부장적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음) 남장으로 팔 년간 천 리를 횡행하였으니, [비록 남에게 몸을 더럽힌 바 없으나 어찌 규중처자의 행실이라고 하겠느냐?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서지 않을 것이요, 배필이 있다 한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또한 나의 가문이 대대 독신으로 손이 끊겨서 억지로라도 가까이 댈 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나의 혼주가 되어 줄 분인들 어디 있겠느냐?](의문형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냄) 나는 여기서 자결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죽음을 택하기로 함) 너는 나의 한 쌍 보검을 팔아서 나를 이곳에 물어다오.(부탁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 일치 유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죽은 몸이나마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의 처지는 나와 다르니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 없느니라.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 기사(奇士)(기이한 선비)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소저의 당부) 너 역시 기이한 포부와 걸출한 기상이 있는데(여인의 능력을 인정함)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일생을 머리 숙이고 고분고분 살겠느냐?”

(중략)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삼 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으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가에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외화로 돌아옴) 그런데 선생의 능하신 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천문·역학·산학 및 사주·점·부적·도참 등 잡술뿐이요, 마음을 닦고 몸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후세에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십니다.】(소응천에 대한 비판) 그럼에도 기사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니 당치 않습니다. 실상이 없는 이름은 평상시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난세를 당해서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선생은 이제부터 근신을 해도 안온하게 일생을 마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에 은거하지 마시고 그저 적당하고 평범하게 전주 같은 큰 도회지에 살면서 아전 부류의 자제나 가르치며 의식의 총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시면 세상의 화를 면할 수 있으리다.(소응천의 은거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음)(소응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소응천)이 기사가 못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요, 소저의 당부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떠나렵니다. 먼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노닐렵니다. 남장을 그대로 두었으니 가뿐히 차려입고 나설 것입니다. 어찌 다시 여자로서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얽매어 살아가리까?(여자로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함)(주인공의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검녀'

▣ 핵심 정리

- 갈래 : 고전 소설, 한문 소설
- 성격 : 교훈적
- 주제 : 조선 후기 허식적인 사대부의 모습 비판과 선비로서 지녀야 하는 명분과 의리 강조
- 시점 : 외부 - 전지적 작가 시점 / 내부 - 1인칭 주인공 시점
- 특징
 - ① 고전 소설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액자식 구성 방식이 사용되었음.
 - ② 여성이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남.
 - ③ 인물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냄.
 - ④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따르려고 했으나 결국 거부하고 속세를 떠나는 모습이 나타남.

▣ 이해와 감상

'검녀'는 조선 후기의 학자 안석경(安錫敬)의 문집 '삼교만록(雲橋漫錄)'에 수록된 한문 단편 소설이다. 원래는 제목이 없이 수록되어 있다. 안석경이 삼교로 들어간 것은 50세(1768년)로 1770년~1773년 경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녀'의 주인공은 당대 사회에서 낮은 신분의 여성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했고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었기에 당당한 여자로서 독립할 수 있었으며, 그녀가 모시던 소저는 비록 자결을 택하지만 수년간 검술을 익혀 집안의 원수를 갚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의지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상을 보여 준다. 반면에 남성인 소응천은 가식적인 양반의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순종적인 여성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에서, 남자에게 예속되길 거부하고 한 인간으로서, 한 주체적 여성으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여성상을 묘사한다는 점은 이 작품이 갖는 매우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은 “단옹이 호남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다.”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화자 역할을 하는 단옹(丹翁)이라는 사람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소응천은 실존 인물이다.

단옹은 바로 안경석의 친구였던 민백순(閔百順)인데, 그는 노론의 영수 민진원(閔鎭遠)의 손자로, 후에 벼슬이 승정원 좌승지까지 올랐다. 안석경과는 선대부터 교유가 있어 유달리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민백순이 아버지의 귀양지였던 나주에 따라갔을 때 들었을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

소응천(蘇凝天)은 파당으로 인한 혼란한 현실을 떠나 두류산으로 들어가 은거하며 이곳저곳을 유람하다가 말년에 전주로 나와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당시 호남에서는 그가 남명 조식 이후의 고결한 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따라서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한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소응천더러 '과분한 명성 때문에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충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는 무고를 받거나 피세입산(避世入山)이라는 죄목으로 끌려갔던 일이 있어서 실제 삶과 부합된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0698-9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4.21

가격 500원

값 500원

55710



9 79 11 377 06989

ISBN 979-11-377-0698-9 (EPUB2)